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교훈입니다.
광야는 고난과 어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낮추셔서 결국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아짐 없이 받은 복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으로 받은 복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신8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 속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삶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시교독		32번 시편71편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05장	다	같	이
기	도		1부	최민관목사	
			2부	김장옥집사	
성경봉독		창세기12:1-4	인	도	자
찬	양	내 노래 되신 주	성	가	대
설	교	여기서 시작되는 믿음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30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금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12:1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전명숙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609) 6:14-진리의 허리띠
찬송/ 546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이번 주는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금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 3. 주보 성경공부는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입니다.
.....
- 7월 25(금)-26(토) 여름성경학교 캠프
7월 27일(주) 을지병원예배
8월 9일(토)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오종화 김실근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최민관 김장옥	한금현/생일감사
다음주	1층 김종기 오종수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윤태영 태영성	류민정/자녀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7,25) 10구역(황순화)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8,01) 01구역(천영순)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히 9장 22절 제 목 -가인과 아벨	활동 1.7월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2.오늘 활동은 올바른 예배자 찾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치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히 9장 22절 제 목 -가인과 아벨	1.7월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2.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문 보고 기도하기 3.성경학교 준비물 : 8시 40분 집결 세면 도구, 수영복, 수영모, 튜브(선택), 야쿠아슈즈, 긴소매옷, 용돈 약간.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오한금채 자매 기도자 -백성준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3장 14절 제 목 -스스로 있느자 변함없는 하나님	1.7월 암송말씀은 요한 4장 16절입니다. 2.7월 예배인도는 오한금채 자매, ppt는 조수윤 형제, 7/27(주) 대표기도는 조수아 자매입니다. 3.7/19(토)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은혜가운데 잘 마침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김채정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 목 -작은 틈새를 경계하라	1.7/27(주) 대표기도는 백지은 자매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기독교 기본생활

본 내용은 대덕연구단지 직장성경공부에서 1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의 일부이다.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종교는 다 좋은 것 아니냐? 어느 것이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종교가운데 하나로 끌고 가려고 한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선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잡을 것 없는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셨다. 기독교의 핵심은 아주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계발하여 더욱 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뉴스”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인간을 향하여 “승리했다“ “살아난다”는 소식이다. 기독교는 좋은 견해(good views)가 아니고 좋은 소식(good news)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식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인간이 땅 아래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력을 가르친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긴 여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입니다. 성경을 간단히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3:16)고 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인간은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즐겨 쓰곤 한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닌 인간이 가진 본성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을 상대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 인간 영혼의 빈자리는 너무나 커서 태평양의 물을 다 갇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자리는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세상의 종교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듯이 세상의 종교는 영혼의 갈증만 더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지친 인간이 아침에 뜨는 태양을 섬겼고, 밤에 뜨는 달을 섬기게 되었다. 종교는 옳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착하게 살면 누군가가 돕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들여다 보면 결론을 알 수 없는 애매한 질문들과 애매한 대답들로 가득 차 있으나 길은 없다. 인간이 만들었기에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잠14:12)

어떤 사람이 신상조사서에 이렇게 썼다. “종교는 무(無) 취미는 기독교(基督教)”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취향에 맞고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쉽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심오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시며 속죄제물이 되셨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은 미련하게 보인다.(고전1:23)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수용하고 믿으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이런 저런 보증을 들어 놓는다. 시인 구상(具常)씨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생명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비꼴었다.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다. 내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내가 준 마일리지로 충분하니 그것으로 살라’고 하신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는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해 버릴 때 종교적 기교(技巧)와 기복(祈福) 사상이 판을 치게 된다. 오늘날은 포괄적 기독교(inclusive christianity)가 만연한 시대이다. 많은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도 최선도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배타적 기독교(exclusive christianity)가 된다.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이다. 오늘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것이다.

기독교는 과연 이데올로기인가?

물고기 2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본 군중들을 환호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요6장) 이들은 빵을 던져주는 왕을 원했다. '기독교도 이데올로기(Ideology)이다'라는 말은 마르크스주의자(Marxists)들의 주장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필요하여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다”라고 주장한다.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단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기독교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교라면 이데올로기의 한 부류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예를 들면 단순히 마음의 평안 얻는 도피처나,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방편이라든가, 건강하게 사는 길로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적을 갖다 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요한3서 2절을 건강하고,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빌4:13절을 “당신도 수퍼맨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idea)이나 이상(ideal)을 체계화시키고 절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종교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획일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동원되는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러하다. 1920년에 행한 '좌익 공산주의'(Left Wing Communism : An Infantile Disorder)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지혜와 책략과 술책에 호소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스탈린 시절의 무자비한 피의 숙청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잔혹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 온 세사 위하여 (새 505)

Focus :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3:16~27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한 후, 유다는 새롭게 부상한 강대국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므낫세를 비롯해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등 여러 왕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온 백성이 그들과 함께 패역한 길을 걸었습니다. 죄악의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쓰셨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 사로 잡혀 간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1:1~3). 유다의 멸망 이전과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나요?(17절)

적용과 나눔

나를 깨우쳐 주님께로 이끌어 준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입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인가요?(24, 26~27절)

적용과 나눔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느꼈거나,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의 파수꾼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서 구원을 얻지만,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시고, 살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주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전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며 순종할 때,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악인이라도 죄의 길에서 떠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소서. 말씀 듣는 이들에게 진리와 자기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교회와 선교 단체 등의 여름 사역에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특히 다음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2. 에티오피아에 복음주의 성도가 약 2천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잘 훈련되어 아프리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179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국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김종기 황학성 이상열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국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